

가 가

프로그램에 게재된 모든 원고, 사진 및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은 국립극단 및 해당 저자의 소유로
저작자의 허가 없이는 재사용(복제, 재인용 및 개인 SNS와 웹사이트 게시 등)이 불가합니다.
비영리 및 학술적 용도로 복제, 재인용을 원하시는 경우 국립극단 공연기획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락처: perf@ntck.or.kr



국립극단

베르톨트 브레히트

Bertolt Brecht



국립극단

갈릴레이의 생애

Leben des Galile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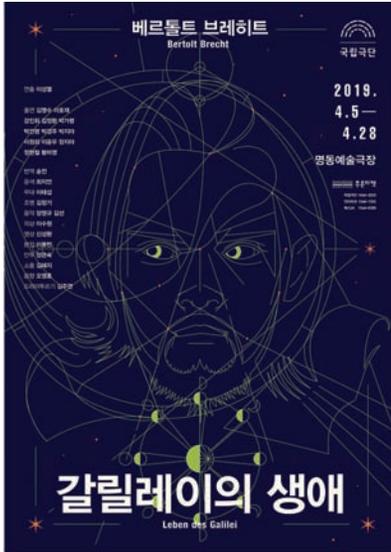
국립극단 - 갈릴레이의 생애

원작 베르톨트 브레히트 Bertolt Brecht

번역 송진

윤색 최치언

연출 이성열



일정

2019년 4월 5일(금) - 4월 28일(일)

장소

명동예술극장

제작

(재)국립극단

연출가와 드라마투르그의 대담	시대의 경계에 서서 바라본 갈릴레이	2
줄거리		8
출연진		9
작품 이해돕기-1	브레히트가 갈릴레이를 만나기까지 ■ 오성균	16
	브레히트 연보	20
작품 이해돕기-2	상징이 아닌 한 인간, 갈릴레오 갈릴레이 ■ 이명현	22
	갈릴레이 연보	25
무대디자인 스케치		28
연습스케치		30
스태프 프로필		32
만드는 사람들		33

시대의 경계에 서서 바라본 갈릴레이



진행·정리 김주연_〈갈릴레이의 생애〉 드라마투르그

지난해 〈오슬로〉를 통해 시대와 조응하는 연극의 힘을 생생하게 보여주었던 이성열 연출이 이번에는 브레히트를 들고 돌아왔다. 연출 인생 처음으로 브레히트에 도전한다는 그가 선택한 작품은 시대와 진실, 그리고 지식인의 책무에 대한 작가의 자전적 성찰이 담긴 〈갈릴레이의 생애〉이다. 이성열에게 연극은 언제나 동시대를 비추는 거울이자 우리의 현 위치를 가리키는 나침반으로서 의미를 가져왔다. 17세기 이탈리아의 한 위대하고 불경했던 과학자를 통해 그가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이며, 그 너머로 바라보는 지점은 어디인지, 작업 중 대화를 통해 미리 들어본다.

일단 모든 질문에 앞서, 단도직입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왜 갈릴레이입니까? 다시 말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17세기 이탈리아의 과학자는 무슨 의미이며, 우리는 이 사람의 삶을 통해 무엇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작품을 낡은 세계와 새로운 세계의 충돌로 보았습니다. 여기에는 과학/종교, 관념/감각, 지배계급/피지배계급, 이성/미신 등 다양한 요소들의 대립과 갈등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그렇게 변해가는 시대의 경계에 서서, 새로운 시대를 개척해가는 선구자로서 갈릴레이를 바라보았고, 그것이 지금의 우리 시대와도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구세대와 신세대의 갈등은 늘 있어왔지만, 최근 우리 사회는 정치, 외교, 사회, 젠더 문제 전반에 걸쳐 급진적인 변화를 맞이하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두 세계의 경계에 서 있던 갈릴레이의 생애를 통해 우리의 현재를 돌아보고, 새로운 세상을 향하는 또 다른 길을 제시하는 것이 충분히 의미 있고 시의성 있는 작업이라 생각했습니다. 또, 새 시대를 열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점에서 저는 이 작품이 <오슬로>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보니, 작년에 연출하셨던 <오슬로>와 <갈릴레이의 생애>의 마지막 장면이 서로 비슷한 듯도 합니다. <오슬로>에서는 라르센이 “우리가 얼마나 멀리까지 왔는지 보세요! 앞으로 여기서 얼마나 더 나아갈 수 있겠어요?”하고 질문을 던지면서 끝났는데, 이 작품에선 새 시대의 주역인 안드레아가 국경의 어린 소년에게 “우린 아직 멀었다, 애야. 우린 사실 이제 겨우 출발점에 서 있는 거란다”고 말하면서 막이 내리죠.

<오슬로>가 적대적이었던 두 나라가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 첫 발자국인 평화협상을 이뤄내기까지의 지난한 과정을 그렸다면, <갈릴레이의 생애>는 시대의 경계선 위에서 다른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험난한 투쟁의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슬로 협정은 결과적으로는 결렬되었지만, 평화의 가능성이라는 새로운 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분명 의미가 있었죠. 마찬가지로 이 작품에서도 갈릴레이의 주장은 철회되었지만, 다음 세대를 통해 국경을 넘어가면서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예견하고 있습니다. 비록 현실은 쉽게 변하지 않을지언정, 경계를 넘어 가는 희망의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비슷한 엔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체홉, 셰익스피어 등 많은 고전을 연출해왔지만, 브레히트 작품은 처음인 걸로 압니다. 브레히트의 작품은 사실 연극사적으로는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지만, 최근에는 자주 공연되지 않는 경향도 있는데요, 이번에 브레히트의 작품을 연출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었는지요? 그의 수많은 작품 중 <갈릴레이의 생애>를 고른 이유도 궁금합니다.

제가 40대 초반까지는 정치나 사회적인 이슈에 큰 관심이 없었고, 그래서 브레히트의 사회개혁적인 연극에 그다지 매력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이를 먹으니 좀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그때는 이미 브레히트의 연극이 한 시대를 휩쓸고 지나간 뒤였고, 주제뿐만 아니라 서사극, 생소화 효과 같은 그의 연극적 형식들도 이미 다른 연극에 다 흡수되어서 더 이상 새롭지 않을 때였죠. 올해 국립

극단 레퍼토리를 고민하던 중 브레히트 작품이 명동예술극장에서 한 번도 공연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나왔고, 그동안 국내에서 자주 공연되지 않은 작품을 우선적으로 고려했습니다. 덧붙이자면 브레히트 작품에는 개인으로서 선명한 개성을 지닌 캐릭터가 별로 없는데, 이 작품 속 갈릴레이는 꽤나 생생한 느낌으로 다가와서 매력을 느꼈습니다.

〈갈릴레이의 생애〉는 총 3개의 판본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초판본이 압제에 반하는 지식의 자유를 설파하고 있는데 비해, 히로시마 원폭 이후 쓰여진 두 번째, 세 번째 판본에서는 진리의 탐구에 국한되지 않는 과학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어 작품의 초점이 다소 달라진 듯한 인상을 주더군요.

“

과학자로서의 책임보다는
갈릴레이가 진실을 발견하고
이를 세상에 알리고자
노력하는 과정을
더 비중 있게 다루려 했어요.

”

원폭 이후 쓰여진 두 번째 판본부터는 과학자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메시지가 강조되는데, 맥락 없이 불췌 튀어나오다 보니 다소 부자연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당대에는 원폭으로 인한 충격이 워낙 컸기 때문에 아마 서사적으로 매끈하지 않더라도 객석에 깊은 울림을 주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과학자의 윤리적 책임은 이미 익숙한 논제이다 보니 특별히 강조할 필요를 못 느꼈고, 오히려 극적인 비약이 지나치게 도드라지는 느낌이 있어 윤색 과정에서 해당 부분의 비중을 줄였습니다. 과학자로서의 책임보다는 갈릴레이가 진실을 발견하고 이를 세상에 알리고자 노력하는 과정을 더 강조하려 했어요.

본격적인 작업에 앞서 갈릴레이와 다른 천문학자들에 대한 세미나와 스터디를 여러 차례 진행했습니다. 연출님은 따로 갈릴레이에 관한 책들도 여러 권 탐독하신 걸로 아는데요, 과학자로서 갈릴레이에 대해 새롭게 갖게 된 생각이 있으십니까?

과학에 대해서는 여전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갈릴레이가 계속 주장한 “눈으로 보는 것이 진실이다. 보이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는 말이 의미심장하게 다가왔습니다. 얼핏 들으면 당연한 말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니까요. 극중 추기경과 학자들이 애써 진실을 보지 않으려 하고, 보고도 안 믿으려는 모습은 지금 우리 사회와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CCTV, 사진, SNS 캡처 등 육안으로 파악되는 명확한 증거가 있음에도 끝까지 버티고 처벌받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인정해도 세상은 훨씬 정의로워질 텐데요. 그래서 자신의 눈으로 본 것을 믿고 이를 통해 진실을 증명하고자 하는 갈릴레이가 새삼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물론 오감만으로 세상을 파악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진실을 대하는 과학자들의 이런 태도는 우리 모두 본받을 만 한 것 같습니다.

여성 캐릭터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작품 속 사르티 부인과 비르기니아는 비중이 크지는 않지만 극중 의미는 작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원작에 그려진 여성 캐릭터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데요, 두 사람 모두 갈릴레이의 연구를 이해하기보다는 그로 인해 많은 희생을 치르면서도 끝까지 헌신하는 평면적인 인물로 그려진 것이 현대의 관점으로 볼 때 다소 불만스럽기도 합니다.

브레히트는 극중 인물을 구세대와 새로운 세대, 그리고 그 가운데 속한 사람들로 그를 짓고 있는데, 사르티 부인과 비르기니아는 중간쯤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와 개혁보다는 현실적인 가치를 중시하고 소박한 행복을 꿈꾸는 사람들이지요. 하지만 구시대냐 새시대냐 하는 관점이 아니라 인간적

인 성숙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들은 그 누구보다도 성숙한 인간형을 보여줍니다. 페스트가 휩쓰는 와중에도 갈릴레이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그를 챙겨주는 사르티 부인의 모습이나 자신의 약혼자를 돌려보낸 아버지의 곁을 마지막까지 지키는 비르기니아 등 몇몇 장면에서 이들은 분명 갈릴레이보다도 성숙하고 깊은 인간미를 보여줍니다. 다만 스스로의 욕망이나 사고에 충실하기보다는 기존의 가치관에 헌신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대적인 인물은 아니지요. 브레히트 나름으로는 이들을 긍정적으로 그리려 한 것이 느껴지지만, 현대의 시선으로 볼 때는 분명 아쉽고 불만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을 겁니다.



특히 실제 갈릴레이의 딸 비르기니아가 말년까지 그의 오랜 벗이자 조력자로서 실험과 저술을 돕는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브레히트가 극중 비르기니아를 종교적이고 신앙심 깊은 여성으로만 부각시킨 점은 여러모로 아쉬움이 남는데요, 연출적으로도 고민이 많이 되었을 듯합니다.



원작에 함부로 손댈 수는 없었지만, 현대적인 관점에서 과하게 느껴지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윤색했습니다. 예를 들어 원작에서는 갈릴레이가 극 중반까지 비르기니아를 속물적이고 인습에 빠진 아이로만 여겨 종종 무시합니다. 브레히트로서는 이랬던 갈릴레이가 나중에 눈멀고 힘이 없어진 뒤에는 그렇게 무시했던 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모순성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조차도 현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불편하고 부당하게 느껴지는 지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 보다는 비르기니아의 따뜻하고 인간적인 면을 더 부각시키고자 했습니다. 사실 재판 장면을 보면 진리의 승리를 외치며 스승의 죽음을 미리 기뻐하는 제자들의 이기적인 모습에 비해, 자기 인생을 망쳐버린 아버지일지언정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비르기니아의 모습이 확실히 더 빛나는 부분이 있어요.

극중 안드레아와 페데르쑤니, 키 작은 사제는 갈릴레이와 뜻을 같이 하는 학문적 동지이자 그의 꿈을 이어받은 제자들이라 할 수 있는데요, 왜 하필 이 사람들이이었을까요?

예수의 열두 제자들이 어부나 세리 등 미천한 출신이었던 것처럼, 여기서 갈릴레이를 따르는 제자들 역시 가정부의 아들(안드레아)과 가난한 농부의 자식(키 작은 사제), 그리고 라틴어를 모르는 렌즈 연마공(페데르쑤니)으로 모두 가난하고 힘없는 계층 출신입니다. 학식 높은 학자나 귀족 계급이 아니라 이런 낮은 계급의 사람들이 제자로 그려진 것은, 비록 이들이 가진 건 없을지언정 편견 없이 진리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고, 바로 이들이 다음 시대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는 작가 브레히트의 생각이 반영된 것이라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여기 나오는 제자들이 각기 어떤 계층이나 계급을 상징한다고도 볼 수 있을 듯합니다.

가장 중요한 제자인 안드레아는 갈릴레이에게 새로운 시대를 상징하는 빛과 같은 인물이지요. 1막에서 갈릴레이가 어린 안드레아에게 새로운 세상에 대해 이야기해주고, 그 안드레아가 자라서 국경을 넘어 새로운 세상으로 향하면서, 또 다른 아이에게 다가올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진리의 빛이 다음 세대로 이어져 새로운 세상을 열어 가리라는 브레히트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러한 새로운 시대는 지식인이나 권력자가 아니라, 가장 평범한 서민의 힘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희망을 읽을 수 있죠. 농부의 자식인 키 작은 사제는 구세력과 신세력 양쪽에 걸쳐져 있어 더욱 깊이 고민하는 인물이고요, 페데르쑤니는 당시 새로운 세력으로 떠오르던 수공업자, 노동자 계급을 대표하는 인물이라 볼 수 있습니다.

브레히트 하면 일단 서사극 양식을 떠올리게 되는데, 연습을 시작할 때부터 브레히트의 서사극이나 생소화 효과에는 특별히 신경 쓰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극중 두 명의 악사 비중이 상당히 크고, 중간 중간 노래가 매우 적극적으로 쓰이고 있는데요.

서사극이나 생소화 효과를 염두에 두었다기보다는 워낙 대사가 많은 작품이다 보니 자칫 지루하게 느껴질 것 같아 대중적인 요소들을 많이 사용하려 했습니다. 극 전반에 걸쳐 토론과 논쟁이 끝없이 이어지니까 어떤 장면들은 정서적으로 풀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처음 대본을 읽었을 때부터 노래와 음악을 원작보다 더 많이 넣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에게 갈릴레이는 구체적인 인물이라기보다는 그저 위대한 과학자, 혹은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는 일화의 주인공으로 각인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작품 속 갈릴레이는 미식가이자 야심가, 때로는 매우 계산적이면서도 지칠 줄 모르는 호기심과 끈기를 지닌 학자 등 다채로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어 흥미롭습니다.

이 작품 속 갈릴레이는 작가 브레히트 자신의 모습이 많이 반영된 인물 같습니다. 브레히트 역시 번뜩이는 재능과 비범한 안목을 지닌 사람이었지만, 남의 아이디어를 자기 것인 양 가져다 쓰는 등 인간적으로는 결점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그런 모습을 갈릴레이에 투영시켜 그의 인간적인 약점과 위대함을 같이 보여주려 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또, 실제 갈릴레이 전기를 읽어봐도 그가 엄청 사교적이고 미식가인데다 계산에 밝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런 모습이 부정적이라기보다는 이 인물을 더 생생한 캐릭터로 만드는 것 같습니다. 위대한 과학자이면서 동시에 인간적인 약점이 있다 보니 더 가깝게 느껴진다고 할까요. 사실 약점이라는 것도 그저 맛있는 거 먹고 싶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누구나 가질만한 인간적인 욕망이다 보니 충분히 공감이 가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종교재판 이후의 갈릴레이의 삶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의 인생의 클라이맥스는 언제나 종교재판, 그리고 “그래도 지구는 돈다”에 멈춰져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작품은 오히려 그 이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여기 나오는 대부분의 장면은 갈릴레이의 전기적 사실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종교재판에서 돌아온 갈릴레이의 모습을 담은 13장, 안드레아에게 『디스코르시』를 건네주는 14장, 그리고 안드레아가 『디스코르시』를 가지고 국경을 넘는 15장은 전적으로 브레히트의 상상으로 만들어낸 창작입니다. 따라서 이 장면들에는 실제 갈릴레이의 삶보다는 이를 바라보는 브레히트의 시선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 있어요. 이 부분에서 저는 『디스코르시』가 국경을 넘어 더 넓은 세계로 퍼져가고, 다음 세대인 안드레아를 통해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이라 확인하는 브레히트의 강한 믿음을 느낄 수 있었고, 저 역시 그 믿음을 무대에 구현하고자 했습니다.

“

이 장면들에는
실제 갈릴레이의 삶보다는

브레히트의 시선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 있어요.

”

17세기 이탈리아 베네치아, 수학 교수이자 유명 과학자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망원경을 접하며 본격적인 천체 탐구를 시작한다. ‘달의 표면에 산맥이 있다’, ‘태양에 흑점이 존재한다’ 등 갈릴레이의 연구는 그동안 가설로 남아있던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을 입증하는 증거가 된다. 하지만 연구 결과가 신성한 로마 교회의 교리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고 결국 갈릴레이는 종교재판정에 서게 되고, 확고한 학자의 양심과 빠져나갈 길 없는 나약한 현실 사이에서 고민에 빠지는데...

In 17th Century Venice, Galileo Galilei, the famous scientist and math professor, began his full-scale exploration of the planets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telescope. His scientific achievements, such as “there are mountains on the surface of the moon” and “there are sunspots on the surface of the sun” provided evidence for the heliocentric theory of Copernicus. However, Galileo was brought to trial for heresy because his research findings were deemed heretical by the Roman Catholic Church. Galileo agonizes over whether he should remain a conscientious scholar or compromise with the illogical view of reality upheld by the status quo.



김명수 Kim Myoung-su

갈릴레오 갈릴레이 Galileo Galilei

연극

- 〈홀스또메르〉 14 | 세르홉스끼 | CGV신한카드 아트홀
- 〈갈매기〉 13 | 프리고린 | 동숭아트센터 동숭홀
- 〈유랑극단 쇼팔로비치〉 10 | 바실리에 | 명동예술극장
- 〈바나야저씨〉 10 | 바나 |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 〈밤으로의 긴 여로〉 09 | 타이린 | 명동예술극장
- 〈오셀로〉 08 | 오셀로 | 동덕여대 공연예술센터
- 〈상이〉 07 | 이상 | 청운예술극장
- 〈시련〉 07 | 존 프락터 | 예술의전당 토월극장
- 〈까미유 끌로델〉 06 | 로맹 | 대학로 티오엠 1관
- 〈맥베드〉 05 | 맥베드 | 국립극장 달오름극장
- 〈햄릿〉 98 | 햄릿 |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외

드라마

- 〈황후의 품격〉 〈내일도 맑음〉 〈내 마음의 꽃비〉 〈그래도 푸르른 날에〉
- 〈훈장 오순남〉 〈객주〉 〈군주〉 〈광개토태왕〉 〈장영실〉 〈대조영〉
- 〈백년의 유산〉 외

수상

- 2007 제44회 동아연극상 남자연기상
- 2006 PAF 예술상
- 1993 제14회 청룡영화상 신인남우상



이호재 Lee Ho-jae

종교재판관, 대학재무관 외

The Cardinal, The Procurator of Padua University et al.

연극

- 〈뜨거운 양철지붕 위의 고양이〉 17 | 빅 대디 | 예술의전당 CJ토월극장
- 〈언덕을 넘어서 가자〉 17 | 완애 |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 〈어머니〉 16 | 피에르 | 명동예술극장
- 〈방문〉 16 | 이주용 |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 〈소년B가 사는 집〉 15 | 아빠 | 백성희장민호극장
- 〈스카이라잇〉 14 | 톰 |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 〈전쟁터를 훔친 여인들〉 13 | 대장군 | 백성희장민호극장
- 〈채권자들〉 13 | 구스타프 |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 〈에이미〉 10/13 | 프랭크 |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외
- 〈밤으로의 긴 여로〉 12 | 티론 | 명동예술극장
- 〈예술하는 습관〉 11 | 피츠(오트) | 명동예술극장

외

수상

- 2011 보관문화훈장
- 2002 서울시 문화상 공연부분
- 1994 제4회 이혜랑연극상

외



이윤우 Lee Yun-woo

어린 안드레아 외 Andrea as a boy et al.

뮤지컬

- 〈다윈영 악의 기원〉 18 | 어린 조이 | 예술의전당 CJ토월극장
- 〈프랑켄슈타인〉 18/15-16 | 어린 프랑켄슈타인 | 블루스퀘어 인터파크홀 외
- 〈킹키부츠〉 18 | 어린 찰리 | 블루스퀘어 인터파크홀
- 〈벤허〉 17 | 어린 티토 | 충무아트센터 대극장
- 〈밀바닥에서〉 17 | 막스 | 학전블루 소극장
- 〈팬텀〉 16 | 팬텀 아역 | 블루스퀘어 인터파크홀
- 〈모차르트!〉 16 | 아마데 모차르트 |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 〈엘리자벳〉 15 | 어린 루돌프 | 블루스퀘어 인터파크홀



정현철 Jung Hyun-chul

어른 안드레아 외 Andrea as a young man et al.

연극

- 〈실수연발〉 16 | 경관 외 | 명동예술극장
- 〈The Power〉 16/15 | 마르셀 외 | 명동예술극장
- 〈보물섬〉 16 | 리브지 의사 |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
- 〈혈맥〉 16 | 갑득이 | 명동예술극장
- 〈겨울이야기〉 16 | 아우틀리쿠스 외 | 국립극장 달오름극장
- 〈리처드 2세〉 14 | 그린 외 | 국립극장 달오름극장
- 〈만파식적 도난사건의 전말〉 14 | 기자1 | 백성희장민호극장
- 〈맥베스〉 14 | 사자 외 | 명동예술극장
- 〈손님〉 12 | 안성만 | 소극장 판

뮤지컬

- 〈스페셜 레터〉 10 | 이철재 이병 | 대구수성아트피아 용지홀
- 〈굿모닝 학교〉 09 | 베드로 | 학전블루 소극장
- 〈지하철 1호선〉 08 | 철수 | 학전그린 소극장 외



강진휘 Kang Jin-hwi

페데르찌니 외 Federzoni et al.

연극

- 〈햄릿아바따〉 18 | 클로디어스 외 |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 〈오슬로〉 18 | 안 에겔란드 외 | 명동예술극장
- 〈깨끗하고 연약한〉 18 | 관객 | 예술공간 서울
- 〈메밀꽃 필 무렵〉 18 | 허생원 | 강릉아트센터 사임당홀
- 〈12인의 성난 사람들〉 16-17 | 7번 배심원 | 미마지아트센터 물빛극장
- 〈햇빛사워〉 15 | 전직형사 외 | 남산예술센터
- 〈이영녀〉 15 | 유서방 | 백성희장민호극장
- 〈줄리어스 시저〉 14 | 카스카 | 명동예술극장
- 〈데모크라시〉 14 | 헬무트 슈미트 |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 〈봄날〉 12 | 삼남 | 명동예술극장 외
- 〈빨간시〉 11 | 삼촌/저승사자 | 혜화동1번지
- 〈임차인〉 08 | 환희 | 정보소극장

외



김정환 Kim Jung-hwan

사그레도 외 Sagredo et al.

연극

- 〈오슬로〉 18 | 요시 베일린 외 | 명동예술극장
- 〈성〉 18 | 게이슈테커 외 | 명동예술극장
- 〈제향날〉 17 | 다역 | 백성희장민호극장
- 〈1945〉 17 | 최주임 | 명동예술극장
- 〈가족〉 17 | 임봉우 | 명동예술극장
- 〈실수연발〉 16 | 드로미오 | 명동예술극장
- 〈한국인의 초상〉 16 | 다역 | 소극장 판
- 〈토막〉 15 | 명서 | 국립극장 달오름극장
- 〈이영녀〉 15 | 나레이터/그 남자 | 백성희장민호극장
- 〈줄리어스 시저〉 14 | 데시우스 | 명동예술극장
- 〈남사당의 하늘〉 08 | 장구식 |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수상

- 2006 제14회 전국국악경연대회 무용부문 대상
- 2006 제42회 전국신인무용경연대회 전통무용부문 차석
- 2005 제23회 전국대학무용경연대회 전통무용부문 은상



박지아 Park Ji-a

사르티부인 외 Mrs.Sarti et al.

연극

〈어느 미술사 이야기〉 18 | 어머니 | 홍익대학교 대학로아트센터 소극장
 〈맹랑별곡〉 18 | 사회자 외 | 대학로 달빛극장
 〈버바팀 1인 음악극 할머니〉 18 | 안점순 | 수원 SK아트리움
 〈9월〉 18 | 선희 | 홍익대 대학로아트센터 소극장
 〈피와 씨앗〉 18 | 바이올렛 | 두산아트센터 space111
 〈3월의 눈〉 18/15 | 통장 | 명동예술극장
 〈준대로 받은대로〉 17 | 오버던 | 명동예술극장
 〈초인종〉 17 | 엄마 | CKL스튜디오
 〈용비어천가〉 17 | 한국인3 | 백성희장민호극장
 〈광주리를 이고 나가시네요. 또〉 17 | 조끼 할머니 | 소극장 판
 〈실수연발〉 16 | 아드리아나 | 명동예술극장
 외

뮤지컬

〈해비메탈 걸스〉 15-16 | 주정민 외 | 예그린씨어터
 〈막돼먹은 영애씨〉 11 | 영애 | 대학로 컬처스페이스 앤유
 외

수상

2017 제54회 동아연극상 유인촌신인연기상



장지아 Zhang Zia

키 작은 사제 외 Little monk et al.

연극

〈록앤롤 ROCK 'N' ROLL〉 18 | 엘레나 | 명동예술극장
 〈성〉 18 | 올라 외 | 명동예술극장
 〈페리클레스〉 16/15 | 디오니자 | 예술의전당 CJ토월극장
 〈세자매〉 13 | 이리나 |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
 〈밤으로의 긴 여로〉 12 | 캐틀린 | 명동예술극장
 〈아마데우스〉 11 | 콘스탄체 | 명동예술극장
 〈우어파우스트〉 11 | 그레트헨 | 명동예술극장
 〈마리화나〉 06-07 | 단지 |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외
 〈에쿠우스〉 05 | 질 메이슨 | 학전블루 소극장
 〈Getting Out〉 05 | 알리 홀스클로 | 학전블루 소극장
 〈남자충동〉 04 | 달래 | 동숭아트센터 동숭홀
 〈생존도시〉 01-02 | 두리 | 동숭아트센터 동숭홀
 외

수상

2012 제17회 허서연극상 기대되는 연극인상
 2005 제26회 서울연극제 신인연기상



박가령 Park Ga-ryeong

비르기니아 외 Virginia et al.

연극

〈호신술〉 18 | 혜숙 | 백성희장민호극장
 〈운명〉 18 | 송애라 | 백성희장민호극장
 〈성〉 18 | 페피 외 | 명동예술극장
 〈자메이카 헬스클럽〉 17 | 지성미 | 익스트림씨어터 3관
 〈내가 하늘을 날 때〉 08 | 정현진 | 상명아트홀
 〈사운드 오브 뮤직〉 00 | 브리지타 |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외

드라마

〈천일의 약속〉 〈부모님 전상서〉 〈천국의 계단〉 〈귀여운 여인〉
 외



박경주 Park Kyung-zoo

루도비코 외 Ludovico et al.

연극

〈호신술〉 18 | 박정훈 | 백성희장민호극장
 〈운명〉 18 | 장한구 | 백성희장민호극장
 〈두드려라 맥베스〉 18 | 맥베스 |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성〉 18 | 아르투르 외 | 명동예술극장
 〈한밤의 사람들〉 18 | 완 |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BJ 파우스트〉 17 | 파우스트&메피스토 | 드림아트센터
 〈페스카마-고기잡이 배〉 17 | 갑판장 | 동양아트센터
 〈금지된 장난〉 16 | 남편 | 연우소극
 〈두 병사 이야기〉 14 | 프랜시스 | 대학로 스타시티 외
 〈도화만발〉 11 | 선비 | 남산예술센터
 외

뮤지컬

〈얼쭈〉 17 | 허생원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당신의 아름다운 시절〉 16 | 클럽사장 | 국립극장 달오름극장

수상

2017 제7회 서울미래연극제 연기상



이원희 Lee Won-hee

거리악사 남편 A busker et al.

연극

〈호신술〉 18 | 윤상천 | 백성희장민호극장
 〈페스트〉 18 | 장 타루 | 명동예술극장
 〈바보리어〉 18/17 | 켄트 | 이해랑예술극장 외
 〈이 일을 어찌할꼬〉 17 | 소태산 | 국립극장 KB하늘극장 외
 〈갈매기〉 17/15 | 트리고린 | 대학로 게릴라극장 외
 〈헨리4세-왕자와 폴스타프〉 16 | 광대장 | 세종문화회관 M씨어터
 〈합익〉 16 | 심재천 | 세종문화회관 M씨어터
 〈문제적 인간 연산〉 15 | 임송재 | 명동예술극장
 〈바냐 삼촌〉 15 | 바냐 | 대학로 게릴라극장 외
 〈세익스피어의 모든 것〉 14 | 베니 | 충무아트센터 중극장 블랙 외
 〈해경궁 홍씨〉 13 | 홍봉한 | 백성희장민호극장 외
 〈궁리〉 12 | 세종 | 백성희장민호극장 외
 외



황미영 Hwang Mi-young

거리악사 부인 외 A busker et al.

연극

〈폐지의 역사〉 19 | 배우 | 두산아트센터 space111
 〈이야기의 방식, 춤의 방식 - 공옥진 병신춤 편〉 18 | 황미영 | 남산예술센터
 〈고발자들〉 17 | 배우 | 나온씨어터
 〈메테아〉 17 | 코러스 | 명동예술극장
 〈나는야 연기왕〉 16 | 배우 | 남산예술센터
 〈두뇌수술〉 15 | 속향 | 혜화동1번지
 〈치정〉 15 | 배우 | 남산예술센터
 〈조치원해문이〉 15 | 오피리 | 백성희장민호극장
 〈테스트랩〉 15 | 헬가 | 대명문화공장
 〈174517〉 15 | 배우 | 정보소극장
 〈1984〉 14 | 배우 | 두산아트센터 space111
 〈젊은후시단〉 14 | 다역 |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외
 외

수상

2013 제34회 서울연극제 올해의 젊은 연극인상



박건령 Park Geon-roung

코시모 대공 외 Cosimo de Medici et al.

공연 데뷔작

TV 프로그램

〈핑크퐁 베이비 샤크〉〈EBS 방귀대장 뽕뽕이〉〈핑크퐁 한글체조〉
〈EBS 우리 몸 X파일〉〈신기한 TV 과학나라〉 외



브레히트가 갈릴레이를 만나기까지

브레히트의 연극론

“20세기의 셰익스피어” 브레히트에
게 연극은 생생한 시대의 화두를 다루
는 사회적 공론의 장이다. 그는 잠자고

있는 관객의 이성을 일깨워 무대사건을 통해 시대를 성찰할 것을 요구한다. 브레히트의 서사극은 관객의 능동적 성찰을 위한 연극구상이며, 그 근저에는 인간 정신의 한계에 대한 통찰이 자리잡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인간 정신은 ‘익숙한 것’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태생적 한계를 지니는 있는데, 이는 익히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깊숙이 파고드는 정신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인간의 본성 때문이다. 인간 정신이 익숙한 것의 함정에 쉽게 빠져들 수밖에 없는 이유다. 문제는 이 ‘익숙한 것’이 시대의 발전을 가로막는 ‘낡은 것’일 경우이다. 이 경우 익숙한 것은 낡은 지배질서의 변화에 장애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브레히트의 연극구상은 이 지점에서 출발한다. 그의 연극은 지배질서를 떠받치고 있는 ‘익숙한 것의 외피를 쓴 낡은 것’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기 위한 토론의 장이다. 달리 말해, 브레히트의 연극은 익숙한 일상 속에는 폐된 진실을 발견하는 기쁨, 이성을 지닌 인간만이 누릴 수 있는 인식의 즐거움을 사회적 실천으로 이어감으로써 기존 질서의 변화를 꾀하는 희망의 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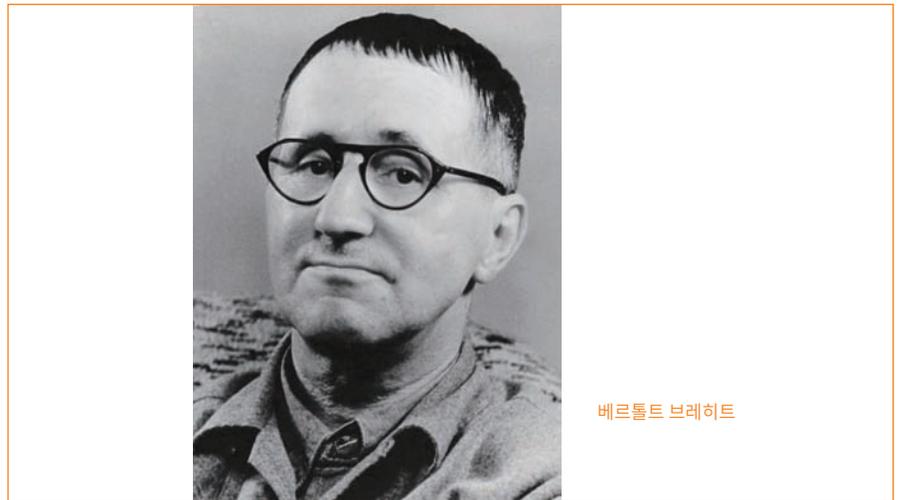
브레히트는 연극을 사회적 공론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인간 정신을 일깨울 미학적 구상을 펼친다. 이 작업은 전통 연극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진행된다. 잘 알다시피, 전통 연극은 긍정적 주인공의 비극적 삶에 대한 감정이입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동정과 연민의 감정을 바탕으로 정교한 감정선을 엮어내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관객이 주인공의 삶에 몰입해서 내면적 일체감을 느끼면서 감정의 정화를 경험케 하기 위한 것임은 물론이다. 그러나 브레히트의 서사극은 이와 반대로 관객의 이성을 일깨운다. ‘장면의 내용요약’, ‘노래’, ‘관객을 향한 대사’ 등 서사적 장치의 힘을 빌려 관객이 무대사건에 감정적으로 몰입하려는 것을 저지한다. 전통 연극을 통해 ‘제2의 천성’이 되어 버린 감정이입 일변도의 관극 태도를 지양하고, 연극을 관찰과 성찰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하려는 의도이다. 그리고 이 의도는 무대사건을 통해 시대적 화두를 인식한 관객이 현실 참여의 길로 나아갈 때 온전히 실현된다.

오성균_중앙대학교 유럽문화학부 독일어문학전공 교수

『갈릴레이의 생애』에 이르는 길

❖ 나치 일당 독재를 꿈꾸던 총리 히틀러가 본인에게 모든 권력을 위임하는 ‘수권법’ 제정을 위해, 단순 방화사건이었던 국회의사당 화재를 공산당의 폭동으로 몰아 4천여 명의 시민을 체포했다.[편집자 주]

1923년, 작가의 나이 25세에 반군국주의적인 내용의 시 「죽은 병사의 전설」을 발표하면서 나치의 살생부에 이름을 올린 브레히트는 일상화된 신변의 위협 속에 살얼음을 걷는 투쟁을 이어갔다. 1933년 2월 정권을 장악한 나치 히틀러가 희대의 공안사건(제국의회방화사건❖)을 조작하여 진보적인 작가지식인을 잡아들이자, 브레히트는 고국을 떠나 망명길에 올라야 했다. 이후 “신발보다 나라를 더 자주 바꾸어가면서” 망명지를 떠돌면서도 브레히트의 반나치 투쟁은 간단없이 지속되었다. 한편, 히틀러 독일은 유럽지배의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1936년 무솔리니의 이탈리아와 군사동맹을 맺고, 1938년 ‘윈헨 협정’을 체결하여 체코슬로바키아를 할양 받았으며, 1939년 오스트리아를 병합하고, 나아가 스탈린과 비밀협정을 맺어 정복 전쟁을 일으킬 수순을 밟아 나갔다. 나치의 유럽지배가 가속화하면서 신변의 위협이 커가는 가운데 브레히트는 투쟁작가로서 자기인식을 새롭게 할 필요성을 더욱 절실하게 느꼈다. 이것이 브레히트가 갈릴레이를 주인공으로 하는 작품을 쓰게 된 직접적인 계기다. 민중의 역사적 기억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인물 갈릴레이, 비록 권력의 폭력 앞에 자신의 학설을 철회하지만, “그래도 지구는 돈다”는 말로 지배권력의 폭력에 맞섰던 전설적인 인물을 나치 독재에 항거할 시대적 표본으로 호명한 것이다.



베르톨트 브레히트

갈릴레이에 대한 브레히트의 관심은 1930년대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베를린에 판옵티콘 극장을 세우고, 소크라테스에서 지오르다노 브루노, 갈릴레이에 이르는 인류사적인 재판을 무대에 올릴 계획을 세웠다. 비록 당대의 권력에 의해 단죄 받고 희생되었지만, 인류사의 발전에 공헌한 역사적 인물들의 이야기다. 이때부터 브레히트는 1633년 갈릴레이의 종교재판을 작품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1933년, 갈릴레이가 로마 교황청에 의해 파문된 지 300년이 되던 해, 제국의회방화사건의 주모자로 법정에 선 불가리아 출신의 노동지도자 게오르기 디미트로프는 갈릴레이의 저항정신을 새롭게 주목 받게 하였다. 최후진술에서 그는 재판관들을 향해 “그래도 지구는 돈다!”는 말을 던지면서 과거 종교재판관들과 마찬가지로 진실의 승리를 막지 못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나치의 탄압에 맞서 진실에 대한 불굴의 의지를 보여준 디미트로프의 자기변론은 갈릴레이를 브레히트의 뇌리에 깊숙이 각인시켰다.



**세 개의 판본, 갈릴레이의 변신:
‘노회한 학자’에서 ‘사회적 범죄자’로**

갈릴레이는 작가 브레히트가 자기결의를 다지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인물이었다. [덴마크판본](1938/39)은 브

레히트의 절박한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다. 이에 따라 주인공 갈릴레이는 권력의 압력에 굴복하여 자신의 학설을 철회하지만, 비밀리에 연구를 수행하는 “노회한 학자”로 그려진다. 그는 가택연금 상태에서 종교재판소의 눈을 피해 새로운 시대를 열어젖힐 필생의 저술을 완성함으로써 “근대 과학의 아버지”로서 시대적 임무를 완수한다. 이 구상은 덴마크 망명 시절 시시각각 좁혀드는 나치 독일의 위협에 굴하지 않고 분연히 항거하겠다는 작가 개인의 자기다짐일 뿐 아니라, 나치 치하 독일의 작가 지식인들에게 불굴의 저항을 촉구한 것이다. 그러나 브레히트는 이내 [덴마크판본]에 그려진 갈릴레이의 도덕에 만족할 수 없었다. 갈릴레이의 저항논리가 나치 독일에서 이렇다 할 반항을 불러일으키지 못하자, “노회한 학자”의 은밀한 저항은 더 이상 시대적 상황에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1945년 8월, 히로시마의 원자탄 투하를 계기로 망명지 미국에서 쓰여진 [미국판본]은 갈릴레이를 세계사적 맥락에 위치시키고 있다. 갈릴레이를 파시즘 투쟁의 일환으로 소환한 [덴마크판본]과는 전혀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게 된 것이다. “원자탄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 새로운 물리학 창시자의 전기

가 새롭게 읽혔다. 원자탄의 끔찍스런 효과가 지배층과 갈릴레이의 갈등을 새롭고, 보다 날카로운 시각에서 바라보게 했다.” 이는 갈릴레이의 부정적인 면모를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수정 작업이 진행되어야 했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학자로서 죽음을 불사한 용기 있는 행동을 보여주었던) 흑사병 장면과 (『디스코르시』를 이탈리아 밖으로 밀반출함으로써 더 나은 미래를 기대케 하는) 마지막 장면 등 갈릴레이를 긍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은 삭제되었다. [미국판본]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덴마크판본]에서 미덕으로 여겨졌던 ‘노회함의 도덕’을 부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덴마크판본]의 ‘우리는 자연에 복종함으로써 자연을 정복한다’는 베이컨의 말과 ‘코이너의 비유’는 삭제되었고, 작품의 말미는 갈릴레이의 격한 자기비판으로 장식되었다.

❖ 첨예한 폭력에 직접 맞서기보다 때를 기다렸다가 적을 제거한다는 내용의 비유적 이야기. 「폭력에 대처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브레히트의 산문집 『코이너씨 이야기』에 수록되어있다.

나아가 작품의 기본적인 갈등구조는 사회정치적 관점에서 강화되었다. 이제 루도비코는 전제 봉건군주로 등장하고, 카니발 민중은 “갈릴레이라는 거물 [...] 성경 파괴자!”를 저항의 투사로 찬양한다. 갈릴레이가 전제 봉건군주에 맞선 민중의 희망으로 그려진 것이다. 물론, 여기에서 갈릴레이를 긍정적으로 그린 이유는 그의 학설 철회가 갖는 사회적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함이다. 그의 변절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민중 전체에 대한 배신행위라는 것이다. 이렇게 [미국판본]에서 갈릴레이는 지배 권력에 굴복함으로써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저버린 사회적 범죄자로 등장한다.



1957년
베를린양상블 제작
〈갈릴레이의 생애〉
공연실황

끝으로, [베를린판본](1954/56)은 슈프라우어담 극장의 공연을 기획하는 가운데 탄생했으며, 현재 가장 일반화된 판본이다. 영어로 씌어진 [미국판본]의 문제의식을 그대로 이어받으며 독일어로 번역한 것으로 흑사병 장면 등을 복원했고 위대한 과학자의 변절이 갖는 사회적 의미를 부각하기 위해 주인공 갈릴레이의 자기비판을 한층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베를린판본]에 추가된 갈릴레이의 통렬한 자기반성(“과학자로서 나는 유일무이한 기회를 가졌었지. 나의 시대에, 천문학이 시정의 광장에까지 퍼져나갔네. 이런 비상한 상황이라면 한 장부의 의연함이 커다란 격동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었을 걸세. 내가 만약 저항을 했더라면, 자연과학자들도 의사들의 히포크라테스 선서 같은 것을 발전시킬 수 있었을지도 모르지 - 자신들의 지식을 오직 인류의 안녕을 위해서만 적용한다는 맹세 말일세!”)은 〈갈릴레이의 생애〉의 주제를 함축한 대사 가운데 단연 백미로 꼽을만하다.

베르톨트 브레히트의 생애

주요 세계사

	1871	독일 제국의 통일
독일 아우크스부르크에서 출생	1898	미국 - 스페인 전쟁 발발 영국과 프랑스가 충돌한 파소다사건 발생
첫 희곡 <성경>을 김나지움(중고등학교) 문예지에 발표	1914	제1차 세계대전 발발
뮌헨대학교 의과대학 입학	1917	러시아혁명 발생 소비에트사회주의 연방정부 수립
제1차대전에 독일군 위생병으로 야전병원에서 근무	1918	제1차 세계대전이 연합군의 승리로 종전
<바알> 초판본 완성	1918	
	1919	연합군과 독일 간 베르사유 조약 체결
<한밤의 복소리> 초연. 클라이스트 문학상 수상	1922	
마르크스 『자본론』 탐독	1926	
<서푼짜리 오페라> 초연	1928	
배우 헬레네 바이겔과 결혼	1929	미국 주식시장 대폭락으로 대공황 발생
나치의 정치탄압을 피해 체코, 오스트리아, 스위스, 프랑스를 거쳐 덴마크로 망명	1933	독일 히틀러 집권(독일 재군비, 베르사유조약 파기 등 선언)
	1935	독일 '뉘른베르크 법'이 공포되며 유대인을 독일인과 격리시킴

1938

- 체코 말릭출판사에서 『브레히트 전집 1, 2권』 출간

1938

1939

- 출간 준비 중이던 『브레히트 전집 3권』이 체코를 침공한 나치에게 압수, 폐기됨

1939

제2차 세계대전 발발

1941

- 〈역척어머님과 그 자식들〉 초연(취리히)
핀란드, 소련 등을 거쳐 미국으로 망명

1941

태평양전쟁 발발

1943

- 〈사천의 선인〉 초연(취리히)

1943

- 〈갈릴레이의 생애〉 덴마크판본 초연(취리히, 공연명 〈갈릴레오 갈릴레이〉)

태평양전쟁 발발

1945

- 히틀러 사망, 나치 독일이 연합군에게 항복
- 2발의 원자폭탄이 투하된 후 일본 항복 선언
- 제2차 세계대전이 연합군의 승리로 종전

1947

- 〈갈릴레이의 생애〉 미국판본 초연(로스앤젤레스, 공연명 〈갈릴레오〉)

1947

1948

- 15년간의 망명생활을 청산하고 동베를린으로 귀환

1948

1949

- 〈역척어머님과 그 자식들〉 독일 초연
- 극단 베를린 앙상블 창단

1949



1951

- 독일정부 수여 '1등 민족공로상' 수상

1951

1954년 5월 1일(노동절)의 브레히트와 아내 헬레네 바이겔. 극단 베를린 앙상블의 표시가 보인다.

1988년 독일에서 발행한 브레히트 탄생 90주년 기념우표

1954

- 〈코카서스의 백목원〉 초연(베를린)

1954

1955

- 〈갈릴레이의 생애〉 베를린판본 초연(헬른)

1955

1956

- 독일 동베를린에서 사망

1956



브레히트와 아내 헬레네 바이겔의 무덤

1957

- 극단 베를린 앙상블의 〈갈릴레이의 생애〉 초연(베를린)

1957

1989

한국에서 브레히트 작품 해금

1990

독일 통일

상징이 아닌 한 인간, 갈릴레오 갈릴레이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초상, Justus_Sustermans, 1637

이명현_과학책방 갈다 대표

‘그래도 지구는 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종교재판을 마치고 나오면서 이 말을 했다는 이야기는 아마 역사상 가장 오래고 가장 유명한 가짜 뉴스 중 하나일 것이다. 과학사학자들의 의견은 갈릴레이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것으로 모아졌다. 갈릴레이 하면 또 떠오르는 단어가 ‘피사의 사탑’이다. 그곳에 올라가서 갈릴레이가 자유낙하 실험을 했다는 것이다. 이것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스티븐 호킹도 갈릴레이가 피사의 사탑에서 낙하 실험을 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틀렸음을 입증한 적이 없다고 여러 번 이야기했다. 대신 표면이 매끄러운 경사면에서 무게가 다른 두 물체를 굴리는 실험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하곤 했다. 이런 내용들은 과학사학자들의 연구를 통해서 잘 알려졌지만 호킹이 한 말이라면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서 그의 말을 인용했다.

갈릴레이의 업적과 생애는 신화화를 거쳐서 상징들이 진실을 장악하고 있는 국면인 것 같다. 오랫동안 그에 관한 거의 모든 것이 금지되었고 금기 사항이었기 때문에 실제적 진실에 접근하는 것이 근원적으로 힘들었기 때문일 것이다. 한 줌의 자료로부터 갈릴레이를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단순화와 상징화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것이다. 갈릴레이에 대한 자료가 공개되기 시작하고 알려지지 않았던 사료들이 발견되면서 그를 평하는 관점도 다양화되기 시작했다. 위인전 속의 갈릴레이는 평전 속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다. 우리가 알고 있던 갈릴레이는 훨씬 더 풍성하고 모순적이고 논쟁적이었던 갈릴레이의 흑백 사진 한 컷이었을 지도 모른다. 그의 삶은 다채로웠으며 그 자체로 논쟁이었으며 모순이었고 이제 우리는 깨닫기 시작했다. 관성 같은 신화를 걷어내면 진실이 보인다.

갈릴레이는 방 속에 처박혀서 연구에만 몰두하던 사람이 아니었다. 여러 방식으로 현실 세계에 관여했던 사람이었다. 아직 ‘과학자’라는 말이 없던 시절 그는 수학자였고 자연철학자였다. 그리고 어느 정도 형식적이고 실용적인 목적이었지만 한때 사제였다. 조금 단순화해 이야기하자면 당시 수학자는 그냥 계산을 하는 사람이었다. 자연철학자가 되어야 자연의 현상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다. 갈릴레이는 수학자로 출발하지만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자연철학자가 되었다. 하지만 당시 자연의 원리 또는 섭리 즉 그것이 운행되는 진리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자격은 사제에게만 있었다. 갈릴레이도 한때 사제였다. 물론 그는 종교적인 의미에서 그 권한을 행사하는 사제는 아니었다. 온전히 세상을 설명할 수 있는 지위를 향한 갈릴레이의 욕망을 엿볼 수 있는 사실이다. 그는 수학자와 자연철학자를 겸하면서 지금으로 말하자면 사업도 했다. 군사용 컴퍼스를 만들어서 팔았는데 인기가 많았다고 한다. 여러 사람을 직원으로 고용한 꽤나 잘 나가는 회사의 사장님이었다. 재테크에 밝은 현실주의자였다는 말이다. 형이상학적 진리 추구와 함께 현실 속 사업을 성공적으로 병행했던 능력자였다. 네덜란드에서 망원경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갈릴레이는 스스로 광학 설계를 하고 망원경을 만들었다. 흔히 그가 망원경을 발명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

지만 이것도 신화다. 하지만 갈릴레이가 망원경을 발명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의 업적을 깎아내리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소문만 듣고 망원경을 만들어 낸 그의 출중한 능력을 확인하는 것이다. 자신이 만든 망원경으로 갈릴레이는 달에 크레이터(Crater, 깊이 파인 웅덩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낸다. 달 표면의 크레이터를 처음으로 그린 사람으로 알려져 있지만 영국의 토마스 해리엇(Thomas Harriot, 1560-1621)이 갈릴레이보다 앞서서 달 표면 스케치 기록을 남긴 것이 발견되었다. 또 갈릴레이 신화가 깨진 것이다. 하지만 망원경을 사용해서 그가 남긴 업적은 해리엇의 스케치 몇 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인류의 유산이 되었다. 망원경을 사용해서 그는 태양에 흑점이 있고 달에 크레이터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당시의 패러다임과는 달리 하늘의 세상도 지상과 마찬가지로 불완전하다는 것이었다. 금성의 위상이 달처럼 변하는 것도 관측했다. 목성 주위에 4개의 위성이 돌고 있다는 사실도 알아냈다. 은하수가 사실은 수많은 별들의 집단이라는 것도 그의 발견이었다. 망원경으로 보면 더 많은 별들이 보인다는 것도 알아냈다. 망원경이라는



베니스 총독에게 망원경 사용법을 알려주고 있는 갈릴레오 갈릴레이
Giuseppe Bertini, 1858

는 도구를 통해서 실제적 진실에 다가가기 시작한 첫 번째 사람이 갈릴레이였다. 현대천문학은 그로 인해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한 표현이 아니다.

갈릴레이는 코페르니쿠스의 태양중심설을 지지했다. 자신이 목격하고 고찰한 내용을 바탕으로 세상을 구성한 후 도달한 당연한 결과였을 것이다. 갈릴레이 자신은 스스로 전혀 의심하지 않는 천주교 신자였지만 그의 관측 결과와 성찰은 그 자신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그의 내부에서 혁명처럼 번지고 있었다. 그는 단 한 번도 신앙을 부인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마 그럴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골수 중세인이었을 것이다. 종교와 과학 사이의 내적 갈등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많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이다. 그는 끊임없이 그가 발견한 사실이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성격의 해석에 대한 오류를 지적하긴 했지만 조물주를 부정한 적은 없다. 하지만 그런 그 자신의 입장과는 상관없이 갈릴레이는 과학혁명의 상징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인식하지 못했지만 그의 관측, 그의 성찰, 그의 추론, 그의 행동, 이 모든 것이 종교를 걷어내고 과학이 다가오는 서막이었던 것이다. 다른 한편 갈릴레이는 목성의 위성을 자신을 후원하던 귀족 자제들의 이름을 붙여서 헌납하는 현실적인 욕망을 지닌 사람이기도 했다.

갈릴레이가 형식적이었지만 사제의 지위를 갖게 된 것은 의아한 부분이었다. 당시 많은 자연철학자들이 그랬듯이 그도 결혼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어느 여인과의 사이에서 딸 둘과 아들 하나를 낳았다. 갈릴레이의 아이들을 낳은 그 여인은 다른 남자와 결혼을 했다. 갈릴레이는 이들 부부를 경제적인 면에서 뿐 아니라 여러 방면으로 후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생아인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정식으로 등록했고 아들에게 자신의 사제 지위를 물려줬다. 사제 지위를 갖게 되면 일정한 구역에서 나

오는 재물을 취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다. 갈릴레이가 사제의 지위를 갖게 된 것은 그의 욕망의 한 단면이기도 하겠지만 그것을 사생아인 아들에게 물려준 사실을 생각해 보면 상당히 현실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었나 하는 추측도 가능하다. 이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갈릴레이는 외골수의 자연철학자가 아니라 복잡한 세상에서 온갖 고민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한 인간이었다. 갈릴레이의 딸들은 수도원에 보내졌는데 특히 큰 딸과 갈릴레이 사이의 종교와 신앙을 둘러싼 갈등이 자주 회자되곤 했었다. 아버지의 신앙적 모순을 지적하고 충성심을 의심하는 딸의 모습으로 말이다. 여러 문학작품 속에도 그런 모습의 딸이 그려지곤 한다. 하지만 갈릴레이의 딸이 아버지에게 쓴 편지들이 발견되면서 이들 부녀의 관계에 대한 ‘진실’이 바뀌었다. ‘1623년 5월 10일 산마테오에서 아버지의 가장 사랑스러운 딸 마리아 첼레스테 올림’으로 시작하는 첫 번째 편지와 한 다발의 편지 속의 갈릴레이와 딸의 모습은 전혀 달랐다. 아버지와 딸은 수도원 생활에 필요한 비용 문제로 걱정하고 위로하는 현실 부녀 그 자체였다.



아버지의 건강을 걱정하고 아버지의 일에 대해서 조언하는 딸의 모습이 역력하게 드러났다. 첼레스테는 심지어 갈릴레이의 비서 역할을 하기도 했다. 갈릴레이의 가족들을 향한 관심과 사랑은 여느 가정의 모습이었다.

갈릴레이는 종교재판으로도 유명하다. 재판정을 나오면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고 말했다는 신화는 깨진지 오래다. 하지만 그가 그런 말을 했건 하지 않았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가 그런 말을 해도 능히 어울렸을 것이라는 역사적 개연성이 중요한 것이다. 갈릴레이는 그를 지지하는 친구들이 많았다. 교황도 그의 친구였고 추기경들도 여럿 그의 지지자이자 친구였다. 그를 시기하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그만큼 또 많았다. 그가 단순한 자연철학자가 아니라 정

로마 종교재판정의 갈릴레오 갈릴레이
Cristiano Banti, 1857

치적 인물이라는 반증이다. 최근의 과학사학자들과 편저술가들은 갈릴레이의 종교재판이 사실은 긴장감 넘치는 살벌한 무대가 아니었을 가능성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다. 물밑 작업을 통해서 재판 과정에서의 발언과 판결에 대한 협의가 모두 끝난 후 갈릴레이는 그 결과 만들어진 시나리오대로 연기를 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양측이 서로 협상을 해서 갈릴레이는 불경죄를 인정하고 종교재판부는 갈릴레이에게 사형 대신 자택연금을 선고하는 각본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당시 갈릴레이를 둘러싼 배경을 고려하면 개연성이 높은 이야기다. 로마로부터 연금이 될 장소로 이동하는 데 몇 달의 시간을 소요했다는 것도 이런 개연성을 높여준다. 갈릴레이는 연금당하는 장소로 가는 동안 여러 귀족들의 초청을 받아서 여러 날씩 머물면서 마치 여행하듯이 이동을 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지만 갈릴레오와 종교재판부가 큰 틀에서 협상을 했다면 이해가 가는 국면이다. 갈릴레이를 둘러싼 신화가 벗겨지면서 더욱 더 풍성하고 그래서 더 모순적이고 더 논쟁적인 그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것이 그의 위대한 업적과 혁명적 상징을 폄하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오히려 그의 삶이 치열했고 혁명의 도래를 위해서 응축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우리는 21세기에 비로소 상징이 아닌 인간으로서의 혁명가 갈릴레이를 만나고 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생애

주요 세계사

	2세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철문학자 프톨레마이우스가 『알마게스트』에서 천동설을 주장함
	1519-15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항해가 마젤란이 최초로 세계일주항해에 성공함
	154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천문학자 코페르니쿠스가 『천체의 회전에 대하여』를 발표하며 구형의 지구가 태양을 1년 주기로 돈다는 지동설을 주장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탈리아 피사에서 출생 	156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각가이자 건축가 미켈란젤로 사망 작가 윌리엄 셰익스피어 출생
	157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천문학자 티코 브라헤가 초신성폭발현상을 관측함 <small>(같은 현상을 조선에서도 관측한 기록이 율곡 이이가 쓴 『석담일기』에 남아있음)</small>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족과 함께 피렌체로 이사 	157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접을 수 있는 자 두 개와 눈금자가 새겨진 '기하와 군사용 컴퍼스' 발명 	1578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사대학교에 입학. 의학을 공부하려 하였으나 수학과 기하학에 천착함 	1582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황 그레고리우스 13세가 새로운 태양력을 만들. 열흘을 앞당겨 1582년 10월 4일 다음날이 10월 15일이 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사대학교에서 수학교수가 됨 	1589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파dua대학교에서 수학교수가 됨 	1592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독일의 케플러에게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을 지지한다는 편지를 씀 	1597	
<ul style="list-style-type: none"> 큰 딸 비르기니아 갈릴레이가 태어남 	16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주의 무한함을 주장한 사제이자 철학자 조르다노 브루노가 교황청에 의해 산 채로 화형 당함

1604

- 천문학자 요하네스 케플러가 프라하에서 초신성폭발을 관측함(같은 현상을 조선에서도 관측한 기록이 『선조실록』에 남아있음)

- 토스카나의 어린 왕자 코시모를 가르치게 됨

1605

- 『기하용 컴퍼스 사용방법』

1606

- 직접 개조한 망원경으로 천체를 관측하기 시작

1609

- 케플러가 『신 천문학』을 통해 행성운동의 1, 2법칙을 발표함

- 목성의 위성 네 개, 별이 무수히 많이 모인 은하수 등 수 많은 발견을 정리한 『별들의 소식』 발표

1610

- 피렌체로 복귀



『별들의 소식』, (1610)

갈릴레이가 『별들의 소식』에 직접 그린 달의 변화도

- 1차 로마 방문. 교황 바오로5세를 접견하고 극진히 환대받음
 - 과학, 철학, 문학 등에서 깊이 교류하는 린체이 아카데미에 여섯 번째 회원이 됨

1611

- 태양의 흑점을 관찰하고 자세히 기록함

1612

- 『물에 뜨는 물체 대한 논쟁』

- 『태양의 흑점에 대한 편지』

1613

- 로마에 머물며 교회 지도자들을 설득하려 하였지만, 코페르니쿠스의 주장을 공식석상에서 지지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음

1615- 1616

- 코페르니쿠스의 『천체의 회전에 대하여』가 가톨릭 금서 목록이 됨

1618

- 독일에서 가톨릭 구교와 신교 간에 벌어진 종교전쟁인 30년 전쟁 발발

1619

- 케플러가 『세계의 조화』를 통해 행성운동의 3법칙을 발표함

- 『두 가지 우주체계에 관한 대화』(일명 『대화』)가 출판(2월)되었으나 곧이어 교황청에 의해 판매 금지됨(10월)

1632

- 종교 재판에 회부되어 유죄를 받음

1633

- 이단적 견해(지동설)을 포기하고 이를 저주하고 증오할 것이라는 문서에 서명하고 가택연금 당함

▪ 수녀로 지내던 큰 딸 사망

1634

▪ 가택연금 중 쓴 『역학과 공간 운동에 관계된 새로운 두 과학에 대한 논의와 수학적 논증』
(일명 『새로운 두 과학』)이 네덜란드에서 인쇄됨

1638

▪ 피렌체 인근 아르체티의 자택에서 사망

1642

▪ 영국에서 아이작 뉴턴 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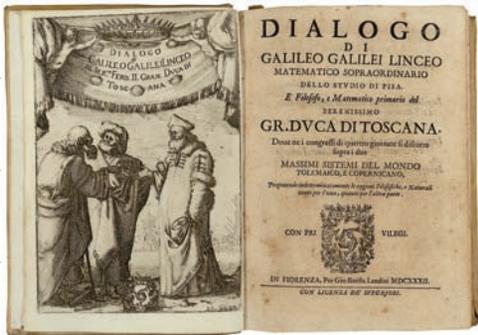
1687

▪ 뉴턴이 『프린키피아』에서 만유인력을 통해 지구와 행성의 운동을 증명함

▪ 『대화』 등이 가톨릭 금서목록에서 해제됨

1835

▪ 코페르니쿠스의 『천체의 회전에 대하여』가 가톨릭 금서 목록에서 해제됨



『대화』, (1632)

그림은 코페르니쿠스, 프톨레마이어스와 토론하는 갈릴레이

1859

▪ 다윈이 『종의 기원』을 통해 진화론 발표

1905

▪ 아인슈타인 특수상대성이론 발표

1916

▪ 아인슈타인 일반상대성이론 발표

1942

▪ 갈릴레이 사후 300년이 되는 날(1월 8일) 스티븐 호킹 출생

▪ 베르톨트 브레히트 작 <갈릴레이의 생애> 스위스 취리히에서 초연(공연명 <갈릴레오 갈릴레이>)

1943

19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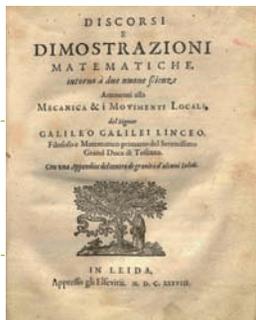
▪ 세계 최초로 소련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가 지구 궤도를 도는데 성공함

1969

▪ 닐 암스트롱이 아폴로11호를 타고 인류 최초로 달에 발을 디딤

1975

▪ 영국 록그룹 QUEEN 'Bohemian Rhapsody' 발표 🎵



『새로운 두 과학』, (1638)

1992

▪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 복권됨.
“지난날의 유죄판결은 고통스러운 오해와 다시 되풀이되어선 안 될 가톨릭교회와 과학간의 비극적인 상호이해부족에서 비롯된 것”

2003

▪ 1989년 발사된 NASA의 갈릴레오호가 목성 탐사 임무를 마치고 가동을 멈춤

지식의 배를 타고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이태섭_무대미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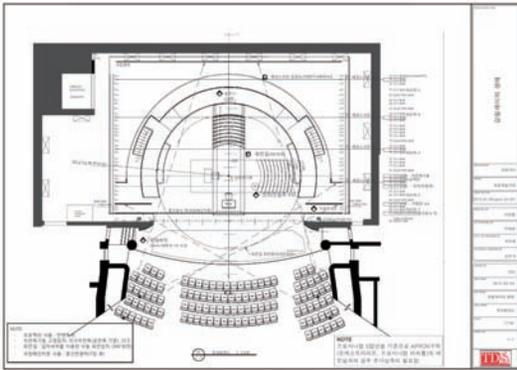


서기 1609년 파도바의 작은 집에서 지식의 밝은 빛이 비쳤네!

가톨릭이 지배하던 중세의 암흑을 깨트리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은 찬란한 햇살이 퍼지는 작은 연구실에서 갈릴레이의 아침식사와 함께 시작한다.

그리고 400여 년이 지난 지금, 목성의 궤도를 날았던 갈릴레이호와 지금은 태양계를 떠나 성간 어디쯤을 날아가고 있다는 우주 탐사선 보이저호의 모습과 겹쳐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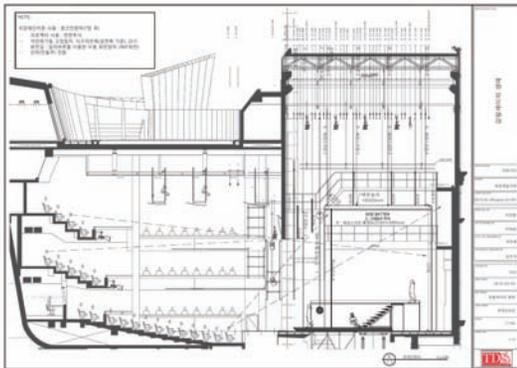
138억 년 전, 빅뱅과 함께 시작된 대우주의 아름다운 서사시처럼 연극 <갈릴레이의 생애>의 무대 역시 둥근 궤도를 따라 계속 이동하면서 대본에서 제시된 15개의 장면을 구성하도록 고안되었다.



갈릴레이의 시대는 새로운 항로를 따라서 새로운 세상을 발견하던 시기였다. 갈릴레이는 그의 어린 제자 안드레아에게 새로운 세상의 시작을 배에 비유하며 소리친다.

“별들은 우리의 배들처럼 큰 항해를 하고 있지,
지구는 유쾌하게 태양 주위를 돌고 있고”

깜깜한 우주를 향해 나아가는 갈릴레이는 마치 위험한 거친 파도를 뚫고 나아가는 선장의 모습과 흡사하다. 무대 위에 떠서 이동하는 구조물은 푸른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와 같은 모습이 연상되길 바랐다. 지구의 자오선처럼 기울어진 선은 배의 궤도를 지켜주는 축의 역할을 한다.



원형의 무대는 과학자의 놀이터로 보였으면 좋겠다. 울타리로 감싸진 벽면은 갈릴레이의 연구를 위한 칠판이 되고 실험을 위한 도구들과 책으로 어지럽혀져 있는 자유로운 공간으로 사용될 것이다. 둥근 무대를 에워싸고 있는 스크린에는 우주 공간에서 만들어지는 다양한 풍경들이 전개된다.

경직된 규범 속에서 새로운 지식이 피어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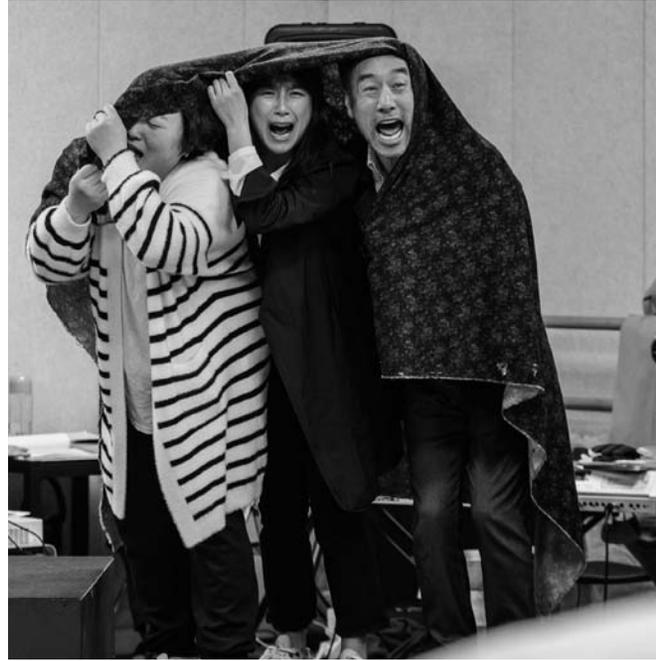
자유로운 놀이터에서 인간들의 상상력이 무한대로 펼쳐지는 새로운 세상을 상상해 본다.



물리학자 김상욱은 그의 저서 『떨림과 울림』에서 우주를 연극에 비유하고 있다.

“우주는 시공간과 물질이라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공간은 무대, 물질은 배우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우주는 시공간이라는 무대 위에서 자연법칙이라는 대본에 따라 물질이라는 배우가 연기하는 연극이다.”

이제는 연극을 통해서 우주의 법칙을 배워 볼 시간이다.





작-베르톨트 브레히트 Bertolt Brecht

연출-이성열 Lee Sungyol

現 국립극단 예술감독

연극 <오슬로> <에어콘 없는 방> <햄릿아비> <아버지와 아들> <날아다니는 돌> <즐거운 복희> <바나야저씨> <과부들> <봄날> <여행> <그린벤치> <키스> <굿모닝? 체흠> <야메의사> <햄버거에 대한 명상> <채권자들> <디너> <죽음의 집2> 외

수상 2018 제11회 대한민국연극대상 대상 <오슬로>
2016 제37회 서울연극제 대상-연출상 <햄릿아비>
2014 제7회 대한민국연극대상 작품상 <즐거운 복희>
2013 제23회 이해랑연극상
2012 제49회 동아연극상 작품상 <과부들>
2009 제30회 서울연극제 연출상 <봄날>
2007 제9회 김상열연극상
2005 제1회 올해의예술상 연극부문 최우수작품상 <그린 벤치>
1998 제34회 백상예술대상 연극부문 신인연출상 <굿모닝? 체흠>

번역-송진 Song Jun

한남대학교 인문학부 교수

저서 『G. 하우스만의 사회극 연구』

역서 『드라마분석론』 『갈릴레이의 생애』 『녹색의 영무새』 『오디세우스의 귀향』

연극 연출 <아름다운 거리> <사랑의 불꽃> <갈릴레오 갈릴레이>

윤색-최치언 Choi Chi-eon

작-연출 <어쩌나, 어쩌다, 어쩌나> <충분히 애도되지 못한 슬픔> <꽃과 건달과 피자와 사자>

작 <색다른 이야기 읽기 취미를 가진 사람들에게> <숲 속의 잠자는 옥희> <소뿔자르고주인고기전에도망가선생> <언니들> <미친극> <밤비 내리는 영동교를 홀로 걷는 이 마음> 외

수상 2017 밀양공연여름예술축제 젊은 연출가전 작품상 <꽃과 건달과 피자와 사자>
2011 제19회 대산문학상 희곡부문 <미친극>
2009 제2회 대한민국연극대상 희곡상 <언니들>
2003 우진창작상 희곡상 <밤비 내리는 영동교를 홀로 걷는 이 마음>

드라마투르기-김주연 Kim Jueyon

연극 <울구-몽유도원> <치정> <햇빛사위> <나는 왜 조그마한 일에만 분개하는가> <투명인간> <살> <농담> <사라지다> <풍찬노숙> <도화만발>

무대-이태섭 Lee Tae-sup

연극 <오슬로> <1984> <조씨고아, 복수의 씨앗> <엘렉트라> <실수연발> <갈매기> <혈맥> <하나코> <아버지와 아들> <리어왕> <이영녀> <리처드2세> <아워타운> <서안화차> <유리동물원> 외

수상 2018 제55회 동아연극상 무대예술상
2005 제42회 동아연극상 무대미술상
2005 국제아동청소년연극제 최우수 무대미술상
2000 제6회 한국뮤지컬대상 무대미술의상상
1996 제1회 무용비평가상 특별상

조명-김창기 Kim Chang-key

극동대학교 연극연기학과 교수

연극 <오슬로> <페스트> <얼굴도둑> <엘렉트라> <3월의 눈> <1984> <여행> <간혹 기적을 일으킨 사람들> <메디아> <아버지> <어머니> <햄릿> <갈매기> <세일즈맨의 죽음> <겨울이야기> <토막> 외

수상 2014 제51회 동아연극상 시청각디자인상
2014 서울연극인대상 조명디자인부문
2013 대한민국문화예술상 대통령상
2006 제43회 동아연극상 무대미술상

음악-장영규 Jang Young-gyu

연극 <백치> <그름, 또는 당신이 세계를 기억하는 방식> <실수연발> <계공선> <이영녀> <광부화가들> <페리클레스> <아버지와 아들> 외
창극 <산불>

영화 <항거:유관순 이야기> <곡성> <암살>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 외

음악-김선 Kim Sun

연극 <오슬로> <백치> <얼굴도둑> <간혹, 기적을 일으킨 사람> <실수연발> <오셀로> <인어: 바다를 부른 여인> <아버지와 아들> <이영녀> <러브 앤 머니> <이인실> <꽃이다> <과부들> 외

의상-이수원 Lee Soo-won

연극 <오슬로> <최서린, 야화순레기행전> <에어콘 없는 방> <봄날> <즐거운 복희> <아마데우스> <그을린 사랑> <미친극> <야메의사> 외
오페라 <투란도트> <봄봄, 동승> <라보엠>
창극·국악극 <산불> <천년도>

영상-신성환 Shin Johannes

연극 <오슬로> <아버지의 집> <19 그리고 80> <과부들> <예술하는 습관> <이상 12월 12일> <33개의 변주곡>
창극 <안드레이 서반의 다리 춘향> <청>
오페라 <투란도트> <돈 조반니>

분장-이동민 Lee Dong-min

연극 <오슬로> <돼지우리> <1945> <실수연발> <아버지와 아들> <조씨고아, 복수의 씨앗> <벚꽃동산> <함익> <먼 데서 오는 여자> <줄리어스 시저> <맘모스 해동> <맨 끝줄 소년> <별자리> <과부들> 외

안무-양은숙 Yang Eun Sook

연극 <어쩌나, 어쩌다, 어쩌나> <별자사인> <Getting out(to Come)> <동물농장> <벚꽃동산> <햄릿아비> <아버지와 아들> <R.U.R> <과부들> 외

소품-김혜지 Kim Hye-ji

연극 <오슬로> <얼굴도둑> <1984> <메디아> <조씨고아, 복수의 씨앗> <실수연발> <불역패재> <잔치> <달빛 안개길> <과부들> 외
수상 2017 제4회 서울연극인대상 무대디자인부문
2015 제52회 동아연극상 시청각디자인상

음향-오영훈 Oh Young-hoon

무용 <평행교차> <1분 59초> <장미의 잔상> <800년의 약속>
음악극 <쪽빛의 노래> <드라곤킹> <토선생 용궁가다>
영화 <행반> <명당> <곡성> 외

무대감독-신승훈 Shin Seung-hoon

연극 <얼굴도둑> <이건 로맨스가 아니야> <널 위한 날 위한 너> <이영녀> <갈매기> <환> <거미> 외

조연출-김현중 Kim Hyun Joong

조연출 <햄릿아비> <산불>
출연 <손님> <오마르> <뒷마루가 있는 집> <돌아온 박침지>

조연출-김은선 Kim Eunsun

조연출 <아버지와 아들> <즐거운 복희> <엘렉트라 파티> <과부들>
무대감독·조연출 <에어콘 없는 방> <벚꽃동산> <봄날>

출연

김명수 갈릴레오 갈릴레이
 이호재 종교재판관, 대학재무관 외
 강진휘 페데르쑈니 외
 김정환 사그레도 외
 박가령 바르기니아 외
 박건령 코시모 대공 외
 박경주 루도비코 외
 박지아 사르티부인 외
 이원희 거리악사 남편 외
 이윤우 어린 안드레아 외
 장지아 키 작은 사제 외
 정현철 어른 안드레아 외
 황미영 거리악사 부인 외

스태프

작 베르톨트 브레히트 Bertolt Brecht
 연출 이성열
 번역 송전
 윤색 최치언
 드라마투르기 김주연
 무대 이태섭
 조명 김창기
 음악 장영구 김선
 의상 이수원
 영상 신성환
 분장 이동민
 안무 양은숙
 소품 김해지
 음향 오영훈
 조연출 김현중 김은선

무대기술 총괄 신용수
 기술감독 김무석
 무대감독 신승훈
 무대제작감독 홍영진
 조명감독·오퍼레이터 김용주
 음향감독·오퍼레이터 음창인
 의상감독 박지수
 무대진행 최정환 김태용 김영주 장재우
 의상진행 전요나 신은혜 이경민
 영상오퍼레이터 정해지
 분장팀 이동민 이승주 이지선

무대제작 쇼텍라인_대표 김석국
 무대어시스턴트 박은혜
 조명장비협력 트리거컴퍼니_대표 황종량
 조명어시스턴트 이명진
 의상제작 무대이야기_대표 이수원
 의상어시스턴트 박인선 임라희 김은영 김수진
 소품제작 인감_대표 이규동
 소품어시스턴트 이희순 박지은
 영상장비임차 미디어공장_대표 신성환
 조명팀 곽태준 서승희 임학균 조승희 정하영
 정주연 최연수 홍주희 손정은

영문자막번역 이재은
 영문자막 제작·운영 김건
 홍보·마케팅 총괄 정용성
 홍보 최윤영 이승이 김울
 마케팅 변정원 박보영 한나래 김태은 오지수
 이정민 김효진 조영채
 극단적낭만인 6기 김희진 서효영 이가운
 임소영 정기웅 황지연
 홍보·연습·공연사진 나승열
 그래픽디자인 노운
 응용디자인 WT_대표 이지선
 홍보영상 602 STUDIO_대표 김영준
 하이라이트영상 오슬로프로젝트_대표 이영관
 기록영상 영상작업공간 틀어_대표 황경환
 옥외광고 킨비즈, 오감
 홍보물 인쇄 미림아트, 예인미술

프로그램 디자인 허미경
 프로그램 인쇄 미림아트
 티켓 김보전 이현아 김보배 김보연
 매표안내원 김다애 김인혜 김현진 박민주
 이선영
 하우스 매니저 김수현 김나래
 하우스 안내원 류혜민 백가현 이지예 정해룡
 이지은 빈수진 권은서 김소희 김주빈 김남희
 임예은 손유희 김예진 박다연 박선준 신혜주
 홍정선 예한비 김주영 김지호 이신영 김다빈
 신혜원 장동률

기획·제작 총괄 지민주
 프로듀서 심소연 김영래
 제작진행 김현희
 제작 (재)국립극단
 예술감독 이성열
 사무국장 오현실



재단법인 국립극단은 연극인 및 연극예술 후원자들로 구성된 이사회와 예술감독 시스템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언제나 삶의 진실한 목소리를 담은 연극을 국민에게 보여드리고자 노력합니다. 인간과 사회에 대한 깊은 성찰을 바탕으로 하는 연극은 곧 예술의 근원이자 총체이기도 합니다. 국립극단은 시와 음악, 춤, 시간과 공간, 미디어 등 모든 것을 아울렀던 연극 본연의 정신을 이어갈 것이며, 또한 동시대인의 삶과 밀접히 관련된 수준 높은 작품으로 세계와 적극 소통할 것입니다. 그 땀과 열정의 무대가 관객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진한 감동으로 완성되기를 바랍니다.

With the board of directors who have been committed in theater or have been patrons for the performing arts, the National Theater Company under the guiding system of the artistic director has always endeavored to stage productions that reverberate with truth and life. We are always reminded of the fact that theater has been the origin of all arts, and it should always reflect thoughtful introspection on humankind and society. The National Theater Company will continue its effort to realize the very spirit of theater which embraces the verse, music, and dance in the newly renovated form of media and understanding of space.

By staging performances that address contemporary problems, we will interact and exchange ideas with the world with our belief that our endeavor will only be completed when our performances touch and move the hearts of our audiences.

(재)국립극단 이사회

김상현 이사장 네이버(주) 경영고문 | 이성열 이사 (재)국립극단 예술감독 | 고희경 이사 홍익대학교 교수 | 길혜연 이사 연극배우 | 이상우 이사 고려대학교 교수 | 이재경 이사 건국대학교 교수 | 정재승 이사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 김철호 이사 국립중앙극장장 | 김성일 이사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 김혁수 감사 삼덕회계법인 상무이사

예술감독

이성열

사무국장

오현실

작품개발실

정명주 실장 | 지영림 작품개발·학술 | 안병군 공연자료 관리 | 나수경 청년인턴

공연기획팀

지민주 팀장 | 김옥경 김영래 김철순 정채영 심소연 박성호 프로듀서 | 정은서 청년인턴

홍보마케팅팀

정용성 팀장 | 최윤영 이승이 김울 홍보 | 박보영 한나래 김태은 오지수 이정민 김효진 변정원 마케팅 | 이현아 김보전 김보배 김보연 티켓 | 김나래 김수현 하우스매니저 | 조영채 청년인턴

무대기술팀

신용수 팀장 | 김무석 기술감독 | 신승호 김정빈 무대감독 | 최솔기 홍영진 김혜란 무대제작감독 | 나혜민 무대기계감독 | 음창인 이병석 박정현 음향감독 | 김용주 류선영 임수연 조명감독 | 박지수 무대의상감독 | 권라임 이현경 이미현 장도희 김지유 연수단원

경영관리팀

정광호 팀장 | 신민희 대외·평가·예산 | 현승은 박지민 이민주 예산·회계·세무 | 이민희 복무·복지후생 | 정병욱 시설·안전관리 | 박예원 정보화·교육 | 최태영 인사·제도관리 | 김시내 비서·윤리경영 | 주현우 노무·자산·계약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

김성제 소장 | 김미선 프로듀서·국제교류 | 손준형 연구원 | 최은정 예술교육

2019 시즌단원

강해진 김한 김수아 박가령 박경주 양서민 이수미 이원희 이종무 이호철 임준식 장지아 정원조 정세별 조남용 주인영 홍아론



이종무

〈고독한 목욕〉
〈콘서트-동의〉
〈알리바이 연대기〉



주인영

〈콘서트-동의〉
〈빙화〉
〈한여름 밤의 꿈〉



이수미

〈자기 앞의 생〉
〈빠의 기행〉
〈스카팜의 간계〉



정원조

〈자기 앞의 생〉
〈알리바이 연대기〉
〈한여름 밤의 꿈〉



양서빈

〈콘서트-동의〉
〈스카팜의 간계〉
〈한여름 밤의 꿈〉



장지아

〈갈릴레이의 생애〉
〈빙화〉
〈한여름 밤의 꿈〉

2019년
국립극단과 시즌단원이
함께합니다.



김한

〈자기 앞의 생〉
〈스카팜의 간계〉
〈한여름 밤의 꿈〉



박경주

〈갈릴레이의 생애〉
〈스카팜의 간계〉
〈한여름 밤의 꿈〉

괄호 안은 단원들의 출연작입니다.



김수아

〈빠의 기행〉
〈빙화〉
〈한여름 밤의 꿈〉



이원희

〈갈릴레이의 생애〉
〈빙화〉
〈한여름 밤의 꿈〉



정세별

〈고독한 목욕〉
〈콘서트-동의〉
〈한여름 밤의 꿈〉



홍아론

〈고독한 목욕〉
〈빙화〉
〈한여름 밤의 꿈〉



임준식

〈고독한 목욕〉
〈콘서트-동의〉
〈스카팜의 간계〉



강해진

〈빠의 기행〉
〈스카팜의 간계〉
〈한여름 밤의 꿈〉



이호철

〈빠의 기행〉
〈스카팜의 간계〉
〈한여름 밤의 꿈〉



박가령

〈갈릴레이의 생애〉
〈스카팜의 간계〉
〈한여름 밤의 꿈〉



조남웅

〈빠의 기행〉
〈스카팜의 간계〉
〈한여름 밤의 꿈〉



하나,

온라인 투고!
playpost@ntck.or.kr

둘,

배우들과 함께 하는
낭독회!

셋,

정식 공연으로 제작!

- 국립극단에서 공연할 창작 희곡을 찾습니다.
- 희곡은 익명으로 온라인 접수 부탁드립니다.
- 낭독회 및 정식 공연은 접수된 작품 중 일부에 한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문의

국립극단 02-3279-2259

※ 자세한 내용은 국립극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료회원 안내 문의 1644-2003

국립극단 친구들만의 특별한 혜택을 누리보세요.

앉고 싶은 좌석을 누구보다 빠르게, 우선 예약 서비스 제공
제작공연 최대 할인을 제공

남만이 갖든 명동예술극장과 서울역 뒤편 빨간 극장
(백성희장민호극장, 소극장 판)

국립극단이 제작하는 수준 높은 연극이 1년 내내 이어지는 곳.
이 공간을 찾는 여러분이 항상 연극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친구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티켓 우선 예약으로 나만의 좌석을 미리 선점하는 기쁨,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연극을 보는 즐거움,
1년 중 한 작품은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혜택까지.

국립극단 친구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혜택을 누리보세요.

구분	연회비(원)	혜택
친한 친구	5만원	혜택 40%할인 (진등급, 4매한) 제작공연 티켓 우선 예약 (2일전 유선예약) 극단 기념품 제공
좋은 친구	10만원	친한친구 혜택 포함 제작공연 1개 작품 초청 (R석 2매/명동예술극장 기준)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통해 누구나 가입 가능

회원 유지기간: 가입일로부터 1년

※ 상기 혜택 중 극단의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유사한 혜택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국립극단

나 가 살 아 야 하 는 영 국 극

2019.4.24-5.19
백성희장민호극장

원작 **호시 신이치**
각색·연출 **전인철**

출연
유병훈 안병식
김명기 이봉연
권일 김정민
박희정

무대 박상봉
조명 최보은
의상 김우성
분장·소품 장경숙
음악 박민수
영상 정병록 김성하
안무 김혜섭
음향 김병수

SHINSEGAE
세계문화재단
프리마켓

국립극단
1644-2003
인터파크
1544-1555



2019 연속미 판



기	민	경	4.19
프	가	구	-21
트	모	치	4.26
소	오		-28
백	석	현	5.3
운	혜	진	-5
			5.10
			-12

소극장 판

전석 무료(사전 예약)
국립극단 1644-2003

기획초청공연

원작 S. Becket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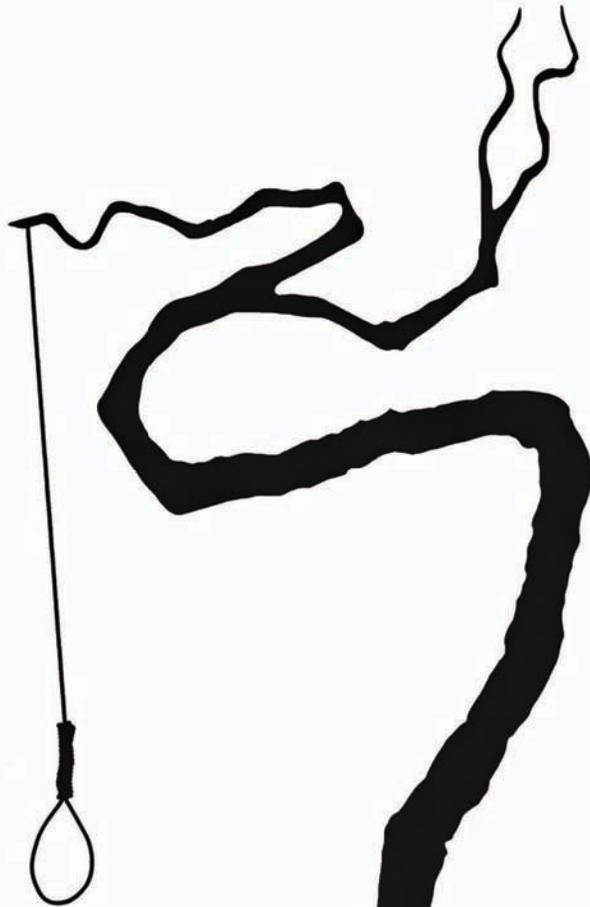
번역 오증자

연출 임영웅



국립극단

산울림 50
1969-2019



임영웅 연출의

고도를 기다리며 50th
1969-2019

기다리며

2019.5.9-6.2 명동예술극장

SHINSEGAE 푸른티켓
신세계세계여행점

국립극단 1644-2003

인터파크 1544-15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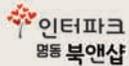
에스24 1544-6399

국립극단



제휴처 혜택 안내

국립극단 공연 입장권을 소지하시고
해당 매장을 방문하시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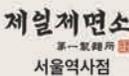
도서 구매시, 10% 할인 및
아메리카노 1+1 쿠폰 증정
(*집지, 특가도서, 중고도서 제외)
북카페 전 메뉴 20% 할인

02-6004-7391



샤오롱바오(10개) 제공
*기본메뉴 주문 시 1회 제공,
중복할인 및 포장 불가

02-3789-2778



매콤순살담튀김小 제공
*식사메뉴 주문 시 테이블 당 1회 제공,
중복할인 및 포장 불가

02-313-1880



전 메뉴 10% 할인
*타 쿠폰 중복 불가,
할인 카드 중복 가능

02-778-6731



전 메뉴 10% 할인
*타 쿠폰/행사/임직원할인/
매니아데이 중복 불가,
성인 2인 이상 시 사용가능

02-779-7871



호텔28 레스토랑 '월향'
20% 할인

02-774-2828



햄버거 단품 구매 시
탄산음료 혹은
아이스커피 M,
따뜻한커피 S 중
1잔 증정
(행복의 나라 제외)
맥카페 구입 시
동일 제품 1+1 증정

070-7017-6404

명동예술극장

자기 앞의 생

2.22. — 로맹 가리 원작
자비에 제이아르 각색
박해선 연출
3.23.

갈릴레이의 생애

4.5. — 베르톨트 브레히트 작
이성열 연출
4.28.

고도를 기다리며

5.9. — 사무엘 베케트 원작
임영웅 연출
6.2. 극단 산울림 제작

콘서트-동의

6.14. — 니나 레인 작
강광원 연출
7.7.

스카팽의 간계

9.4. — 올리에르 작
밀도완 연출
9.29.

알리바이 연대기

10.16. — 김재업 작·연출
11.10.

한여름 밤의 꿈

12.4. — 윌리엄 셰익스피어 작
문심화 연출
12.29.



2019년 국립극단



*상기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극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NTCK.OR.KR

영지

5.23. — 허신혜 작
김미란 연출
6.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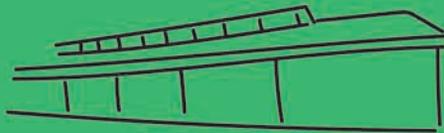
연출의 판 - 연출가전 김철승

10.11. —
11.3.

청소년극 신작

11.21. —
12.15.

소극장 판



백성희장민호 극장

고독한 목욕

3.8. — 안정민 작
서지혜 연출
3.24.

나는 살인자입니다

4.24. — 호시 신이치 원작
전인철 각색·연출
5.19.

뼈의 기행

5.31. — 백하룡 작
최진아 연출
6.16.

죽고 싶지 않아

8.22. — 류정현 안무·연출
9.8.

빙화

9.27. — 임선규 작
이수민 연출
10.13.

희곡우체통

희곡접수 상시
낭독회 8회 예정

북한현대연극 툄아보기

연출의 판 - 작업진행중
쇼케이스 4-5월

작품 개발 사업

우리연극

원형의 재발견
쇼케이스 6월

한여름

밤의
작은극장 7월



*작품개발사업은 백성희장민호극장 소극장 판 등에서 진행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천체의 운행 뿐 아니라
성경 말씀까지도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373 국립극단
373 Cheongpa-ro, Yongsan-gu, Seoul, Korea (04302)

서울시 중구 명동길 35 명동예술극장
35 Myeongdong-gil, Jung-gu, Seoul, Korea (04534)

